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왕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5주기 추모식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킹 특선 춘추논 55 안녕 우리말	00 월화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재)	00 그린실버 고aying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집
12 40 채널A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10 MBC 청요 뉴스 20 통일전망대(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KBC 열린드론회(재)
1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시간을 달리는 TV(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2	00 2015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축구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 00 이연경의 직면직설	40 아성일기(재) 55 튜브생방송	05 후토스 일여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퓌?퓌!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라링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취재파일 K(재)	00 TV유치원 30 아육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집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론 생명이야 30 안녕 저두야
5 5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내 머리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30 일일드라마 <다 잘될 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토크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들어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우리 집 꿀단지	30 2TV 저녁 생생정보 2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집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10주년 특집 생활의 달인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휴식>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밀착토크 풍문으로 들었SHOW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특집 다우멘터리 <유배>	15 힐링캠프 500인
12 30 충격 실화극 세인(재)	20 해외결정 드라마 <닥터 후 시즌9>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실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생활보감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05:40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50 크로마의 창의력 팽팡(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6:30 코코코 다코	20:40 다큐 오늘
0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단종영 유치원 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겨울왕국, 시베리아를 가다>
07:45 로보카 폴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1:30 한국기행 <천바람 불면, 김장>
08:00 당동명 유치원 1	13:05 지식네일	17:45 로보카 폴리(재)	21:50 EBS 다크프라임 <생존-1부 최후의 생존, 숲>
08:10 Why 최고다 호기심딱지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22:45 달라졌어요
08:20 당동명 유치원 2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5 케니널	23:35 프래임 인-스피드큐, 청춘
08:30 두다다쿵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2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2	24:05 지식네일
08:40 당동명 유치원 3	14:00 미술탐험대	18:25 두기탐험대	
08:45 코코코 다코	14:30 놀이단 구조대 보잉	18:4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09:00 크로마의 창의력 팽팡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발명기 팽팡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	13:05 수능특강light <영어-독해>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문학-알짜개념>(재)	14:0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재)
01:40 " <문학-알짜개념>	14: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2:30 " <미적분1>	15:40 " <미적분2>(재)
03:20 " <수학 1>(재)	16:30 " <수학 1>(재)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1>	17:20 " <미적분2>(재)
05:00 뉴탐스런 <물리>	18:10 뉴탐스런 <사회문화>(재)
06:00 " <생명과학>	19:10 " <동아시아사>(재)
06:50 " <동아시아사>	20:00 EBS스타강사 특강 <사회문화>(재)
07:40 " <윤리와 사상>	20:50 배움플러스(재)
08:30 " <사회문화>	21:00 수능특강light <영어-듣기>
09:20 " <한국지리>	21:50 세계의 아이들 <한국지리>(재)
10: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수학 1>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1:00 뉴탐스런 <생명과학>	23:05 뉴탐스런 <한국지리>(재)
12:15 " <윤리와 사상>(재)	23:55 지식네일

EBS플러스2

07:0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5:20 만점왕 <국어 3-2>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5:50 " <국어 4-2>
08:30 AT자격 시험대비강좌	16:20 " <국어 5-2>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 <국어 6-2>
09:10 TV중학 <국어1(1)>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수학1(상)>
09:50 " <수학1(상)>	17:50 다큐 오늘 <역사 1>
10:30 " <역사 1>	18:00 TV중학 <국어 5(6)>
11:10 " <국어3(4)>	18:40 " <수학3(상)>
11:50 " <수학 2(상)>	19:20 필독중학 세계사
12:30 실천취업가이드	20:00 EBS 기획특강
13:00 대일리 서술형 수학	20:50 EBS 기획특강
13:10 등업신공 <수학1(상)>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중학 중간, 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학 1-2>	22:00 중학 중간, 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학 2-2>
14:30 등업신공 <수학2(상)>	22:40 등업신공 <수학3(상)>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3일(음 10월 12일 癸卯)

子	48년생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다. 60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나중에 보람을 느낄 것이다. 72년생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희망찬 미래가 밝아 온다. 84년생 짜임새 있는 설계가 발전적인 판도를 만든다. 행운의 숫자 : 71, 44
丑	49년생 흐르는 물처럼 순조로운 것이니 마음편히 임하면 된다. 61년생 기운의 양상을 살펴본 후에 판단하자. 73년생 확실하지 않다면 삼가는 것이 면책 하라. 85년생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으니 한시를 놓아도 되겠다. 행운의 숫자 : 45, 54
寅	38년생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50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62년생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74년생 소신껏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6년생 실망하여 허탈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1, 04
卯	39년생 눈부신 햇살처럼 행운이 비추는 것이다. 51년생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지 말라. 63년생 확실시 변화시켜야만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 75년생 임장이 뒤바뀔 수도 있는 여자는 충분하다. 87년생 매사가 길하리라. 행운의 숫자 : 55, 25
辰	40년생 힘들더라도 차츰 전망이 밝아질 것이니 앞날의 가능성을 보고 임하라. 52년생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 줄 것이다. 64년생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76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6, 62
巳	41년생 전후좌우의 정황을 살피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다. 53년생 기막힌 인연임을 알게 되리라. 65년생 행운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확실하게 잡아라. 77년생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성가시게 한다. 행운의 숫자 : 63, 17

午	42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단이 될 것이다. 54년생 당면한 현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66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78년생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거둘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8, 40
未	43년생 옛것으로부터 기회가 올 수 있다. 55년생 무리하면 역효과 날 수 밖에 없다. 67년생 짜임새 있는 시간 활용이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79년생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1, 70
申	44년생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56년생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68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곤경에 빠지리라. 80년생 혼자서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문제이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80, 32
酉	45년생 재물 운이 훨씬 좋아지고 있으니 진척해 보자. 57년생 본래의 의지대로 행해 후회하지 않으리라. 69년생 현재의 기본적인 양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버려라. 81년생 일단 정지한 후에 재시도하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33, 83
戌	46년생 지나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58년생 현안을 타결하거나 못하느냐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70년생 앞뒤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82년생 발일 없을 것이니 계속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2, 94
亥	47년생 지금은 안개 속 갈아서 혼란스럽겠지만 머지않아 가닥이 잡히면서 제대로 인식하게 되리라. 59년생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 봐야 분배하지 않는다. 71년생 다다익선임을 알라. 83년생 불이 붙었을 때 확실하게 지퍼야겠다. 행운의 숫자 : 95, 7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관객에게 감정 잘 전달되면 좋겠어요”

영화 ‘도리화가’로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진채선 役 배우지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매년 최선을 다했어요. 판소리에 노래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정 전달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연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걸 그룹 미스에어로 데뷔해 처음 출연한 영화 ‘건축학개론’(2012)을 통해 ‘국민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배우지(21)가 오는 25일 개봉하는 ‘도리화가’로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배우지는 “관객들에게 제 연기가 어떻게 보일지 떨리지는 않는다”면서 “되돌아보면 행복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 “관객에게 감정이 잘 전달되면 좋겠다”며 “그게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며 웃어넘겼다.

배우지는 이번 영화에서 시대의 금기에 맞서고 자신의 꿈에 도전한 당찬 여류소리꾼 진채선으로 분했다.

3년 만에 두 번째 영화로 ‘도리화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는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좋았고, 너무 하고 싶었다”며 “잘 읽히고 감정 이입도 잘됐다”고 전했다.

“연습생 시절에 가수를 준비하면서 느낀 감정이 스쳐가기도 했어요. 진채선에 감정이입이 어렵지 않았죠. 시나리오에 제 가슴을 뚫리게 하는 뜨거운 무언어가 있었어요. (작품)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거 같았죠.”

진채선이라는 인물에 구체적으로 감정이 이입된 지점을 알려달라고 하자 배우지는 “가수 지망생이었던 때 부모님께서 내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싫어하셨다”며 “거짓말을 하고 춤과 노래를 연습하러 나갔던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가수가 되려고 춤 동아리에서 연습할 때도 잘하고 싶은데 땀도 잘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며 “포기하고 싶고, 속상하고, 서러워 연습실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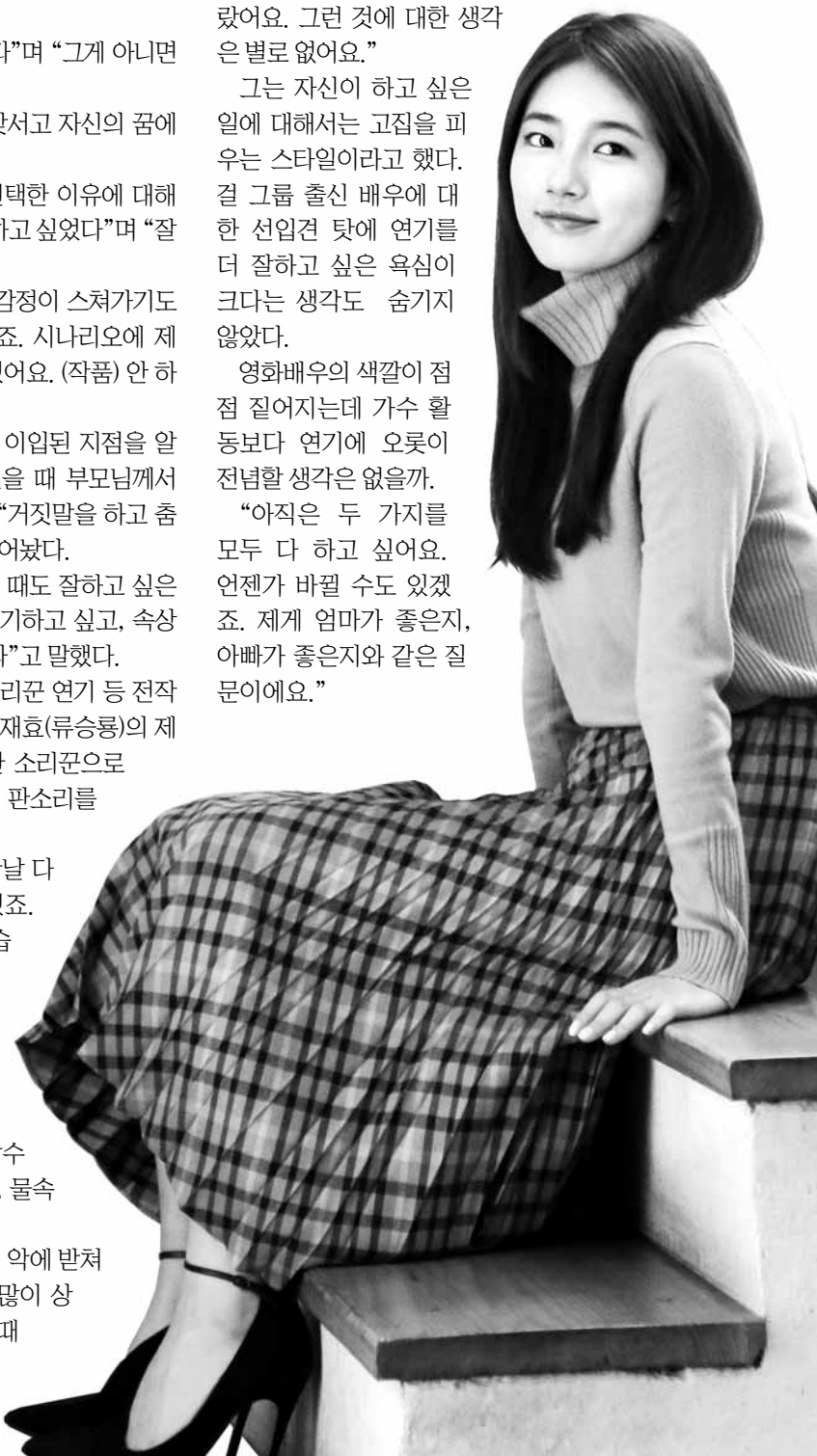
배우지는 이번 영화에서 사투리, 남장, 소리꾼 연기 등 전작 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신재효(류승룡)의 제자가 되고 나서 혹독한 연습을 통해 진정한 소리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판소리를 배웠다.

“판소리는 악보가 없어서 배울 때마다 만날 때 큰 느낌이었어요. 돌아서면 음을 잊어버렸죠. 수업 내용 녹음한 것을 틀어 놓고 반복 학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실제로 배워 보니 생각보다 친근하고, 이제 흥얼거릴 정도로 판소리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 같아요. 계속 배워 볼 생각이예요.”

이번 영화에서는 배우지가 장시간 동안 살수 차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비를 맞는가 하면,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도 몇 차례 나온다.

“감기에 자주 걸려 고생했어요. 폭우 속에 악에 받쳐 계속 소리치르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목도 많이 상했고요. 추운 날씨에 입수하는 장면을 찍을 때는 발뽀가 잘리는 줄 알았어요.(웃음)”

예초 대본상으로는 표준어로 연기하기로 돼 있었으나 첫 촬영 날 ‘순박



대중상 영화제 ‘국제시장’ 민망한 10관왕

남녀주연상 후보 9명 불참...대리 수상 논란

영화 ‘국제시장’이 제52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10관왕을 차지했다.

‘국제시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대중상 시상식에서 전체 24개 부문 가운데 10개 부문을 석권했다. 시상식의 주요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윤재균), 남우주연상(황정민), 남우조연상(오달수), 시나리오상(박수진), 녹음상(이승철·한명환), 촬영상(최영환), 편집상(이진), 미술상(한태정 등 ‘국제시장’ CG팀 5명), 편집상(이진)을 휩쓸었다. ‘국제시장’은 기희상도 가져갔다.

여우주연상은 ‘암살’의 전지현, 여우조연상은 ‘사도’의 김혜숙에게 돌아갔다.

신인남우상은 ‘강남 1970’의 이민호, 신인여우상은 ‘봄의 이유’가 받았다.

신인감독상은 ‘뷰티 인사이드’의 백 감독이 차지했다. 영화 팬들의 투표로 뽑힌 남자인기상과 여자인기상은 각각 김수현과 공효진에 돌아갔다.

52년간 이어져 온 대중상 영화제는 이날 남녀주연상 후보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불안하게 문을 열었다. 남녀주연상 시상뿐 아니라 전 부문에 걸쳐 ‘대리 수상’이 난무하면서 행사의 흐름이 끊기고,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전체 24개 부문 가운데 11개 부문에서 대리 수상이 나왔다. 참석하지 않는 배우에게는 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대중상 측은 말을 바꿔 모든 대리 수상자들에게 상을 안겼다. 또 예초 배우 김혜숙에게 주기로 했다가 대리수상 문제로 갈등을 빚은 ‘나눔화합상’은 아예 시상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를 대신해 급조한듯한 한국영화공로상은 정창화 감독과 배우 윤일봉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윤재균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국제시장’을 만들 때 역사사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며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참석해주신 배우와 스태프, 그리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모두 역사사지의 마음으로 영화제가 화합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소회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가수 비 “결혼 결정되면 직접 말씀드릴게요”

최근 배우 김태희(35)와 잇단 결혼설에 오른 가수 비(33)가 “결혼이 결정된다면 직접 말씀드릴게요”고 밝혔다.

비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은 인륜지대사다. 그 만큼 당사자에게는 큰 일”이라며 “그런 중대하고 큰 일이 결정된다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오랜 팬들과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는 이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결혼에 관련한 기사들이 나와 많은 분께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같이 글을 올리다”며 “앞으로 저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믿지 말아달라”고 잘라 말했다.

2011년 한 광고에 함께 출연하며 연분을 쌓은 비와 김태희는



2012년 가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2013년 1월 1일 열애 사실이 공개된 뒤로 연인 사이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몇 차례 두 사람의 결혼설이 흘러나왔으며 최근 증권가 정보지에도 둘의 결혼이 임박했다는 설이 제기됐으나 양측은 매년 부인했다. 이어 지난 20일 한 여성 월간지가 또 한번 두 사람이 12월24일 국내 모처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보도했고, 두 사람의 소속사는 즉각 부인했다. /연합뉴스